

문화원 활동 이모저모 2

한국화 교실 개강



▲ 한국의 전통적 기법과 양식에 의해 다루어진 그림인 한국화 교실이 9월 8일(월) 오전 자료실에서 개강했다.
한국화는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교육하며, 한국화의 기초부터 세밀하게 배울 수 있다.

산우회 산에 갔네



▲ 사람 많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온양문화원 산우회가 8월 금수산 얼음골 계곡(충북 제천)에서 단합대회를 시작으로 9월에는 지리산 뱀사골, 10월에 경북 예천 회룡포에서 우정을 다졌다.

칠보공예 교실 개강



▲ 유약과 온도에 의해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는 화려하고 오묘한 실용적인 공예인 칠보공예 교실 개강식이 지난 10월 9일(목) 오전 문화원 2층 자료실에서 가졌다.
칠보는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보석으로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 다양한 장신구를 만드는 기법을 배운다. 칠보공예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된다.

효문화탐방 구석구석 누비다



▲ 전국 각지의 문화유적을 찾아 떠나는 효 문화탐방이 9월로 134회를 맞았다. 11년간 6천여 명이 문화탐방에 참석한 기록인 셈이다.
7월에는 경남 함양 남계·청계서원, 용추계곡등을, 8월에는 전남 무안의 무안회산백련지, 초의선 사유적지를 답사했다. 9월에는 경북 고령에 있는 대가야박물관과 왕릉전시관 등을 찾았다.